

## 2007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 After the Congress of Architects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07전국건축사대회'에 참석하신 5천여 건축사 회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축을 사랑하며 축하해주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임에도 기꺼이 참석하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님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님, 건축계의 발전에 선두 역할을 하시는 정장선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 김진에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님 등 저희의 조심스런 초대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큰 도움을 주신 후원업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65년 창립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유일한 건축사 단체로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며 건축문화를 창조·계승·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착오의 산물인 자랑스럽지 못한 유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건설경제의 침체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자탄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라는 대회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한 우리의 절박함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예술과 경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건축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우리는 "건축문화란 이상인가? 현실인가?"의 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현실은 이상을 구축해왔습니다.

문화가 현실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이상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현실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이상이라면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갑시다!  
진실 중에 하나로 선택한 선언과 결의 -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선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시공업체에 설계업 허용 정책' 반대 결의 - 는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갑시다!

진실 중에 하나로 선택한 선언과 결의 -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선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시공업체에 설계업 허용 정책' 반대 결의 - 는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선언, 결의, 헌혈, 답사, 축제...  
저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임직원은 최선을 다 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소박한 행사를 치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과 임직원, 15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님과 임직원,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사회 회장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임직원과 봉사해주신 건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인천에서 만날 때까지 이 열기와 다짐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더욱 완벽하고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희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